

한국아동이 초기에 획득한 문법적 형태소의 종류 및 획득 시기

The Acquisition of Korean Grammatical Morphemes in Early Childhood

이 순 형*
Yi, Soon-Hyung

ABSTRACT

To reveal when toddlers and children acquire the grammatical morpheme of Korean languag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way they respond to some picture tasks. The object of this research was 174 children ranging from 18 months to 60 months, who were selected from two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ollowing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this study ascertained that 2-, and 3- year-old children acquire the most part of grammatical morphemes such as nouns, pronouns, verbs, adverbs, adjectives, and interrogation terms. The fact that the process of acquisi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six age groups has proved the hypothesis of the gradual acquisition of grammatical morpheme.

- 문법적 형태소(grammaral morphology)
- 언어획득(language acquisition)
- 어휘(vocaburary acquisition)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언어 획득은 인간을 다른 종의 동물과 구별짓는 고유한 현상이다. 언어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청각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음소에 따라 자신의 발음기관을 적응시키는 과정으로 획득된다. 언어 획득이 인지적으로 고유할 뿐 아니라 그 민족 고유한 인지적, 정서적 구축물을 인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서구의 학자들은 아동의 언어획득에 관심을 가져 어휘, 음운, 구문과 문법의 발달을 조사했다. 영어권에서는 자신의 세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획득 현상을 기술한 Brown의 연구(1973)가 언어발달의 세계를 열었으며, 이를 시발점으로 해서 후속 연구들(Clark, 1993)이 밝혀낸 결과가 축적되었다. 주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동의 일상사를 녹음해서 그 발화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문(Berko, 1958), 어휘(Read, 1975), 의미(Halliday, 1975)와 문법의 발달(Bloom, 1970)과 더불어 의사소통의 발달(Snow, 1977) 양상을 밝혔다.

구조주의자들에 의하면 문법은 언어의 구조를 뜻하므로 문법학습이야말로 아동의 인지적 발달을 고찰할 수 있는 과제이다. 문법은 Chomsky와 같은 언어주의자들에게는 타고난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Skinner와 같은 학습이론가들에게는 문법은 주위사람들을 모방하여 학습해야할 과제일 뿐이다. 근래 동물의 언어에 대한 연구보고가 언어주의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언어주의자들과 학습이론가들의 논쟁이 어느 한편의 명확한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는 것은 역시 언어와 마찬가지로 문법도 생리적 요소에 후천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

이다.

문법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주체와 동작의 관계로 규정되는데 이들의 관계는 어순으로 나타난다. 즉 초기 영어는 주체 다음에 동작어가 왔다. 주어와 동사가 이어지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둘째로 격(格)이 문법의 한 구성 요소이다. 격 표지가 문법에 포함된 언어가 많이 있다. 한국어의 조사 등은 격 표지의 명확한 사례이다. 셋째는 문법은 많은 하위 문법형태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형태소들이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Bates & MacWhinney, 1982)이다. 문법적 형태소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Brown과 Bellugi(1964)가 밝혔듯이 문법적 형태소는 각각이 문장의 부분이 되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

아동 발달의 다른 측면과 달리 언어발달은 우리 언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타 언어권 연구가 직접 기초연구로 기능하지 못한다. 즉 영어의 획득은 그 언어의 획득양상일 뿐 한국어의 획득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 5명의 언어 획득 자료를 가지고 한국어의 획득을 설명한 조명한의 연구(1982)를 기점으로 해서 후속연구들(이순형, 1985; 이승복, 1979)이 실시되었다. 이 연구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한 사람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동이 말하는 바를 기록하여 분석한 것이다.

한국어 획득을 최초로 밝힌 조명한은 한국어의 획득을 Brown(1973)의 모형에 비추어 비교하였다. 한국 아동 5명의 언어 출현자료를 가지고 조명한은 한국어 획득의 고유성을 제시했으며, 몇 가지 형태소의 출현을 Brown 자료와 비교했다. 우선 그는 격조사의 출현 순위를 제시했다(p.117). 공존, 장소, 주격, 목적격, 도구격의 순으로 밝혔다. 한편 Brown 자료에 의하면 동사의 진

행형이 그 어떤 시제보다도 우선해서 출현하는데 비해서 한국아동의 경우에 동사 형태소의 평균 출현 순위는 과거, 미래, 수동, 진행의 순으로 보고했다. 한국어 자체가 진행형의 문법구조가 진행형 어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워낙 진행형을 적게 사용하는 언어적 특성이 있다. 이처럼 한국어의 고유한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자연 상황에서 아동이 산출한 언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법 형태소의 출현 순위를 제시했다는 점에 연구의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문법적 형태소가 발현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이 제시될 수 없다. 언어 자료에 출현되지 않은 형태소는 마땅히 앞으로 출현할 것이라는 가정(조명환, 1982, 117)은 그 나름대로의 제한점을 가진다. 이미 획득했지만 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법적 형태소의 출현은 인지적 발달과 사용 맥락의 필요성이 관련되는 현상(Brown & Bellugi, 1964)으로서 알고 있더라도 상황이 형태소를 사용할 맥락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형태소의 출현을 관찰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사 가운데 ‘랑’, ‘와’ 등의 공존격 조사가 가장 먼저 획득된다는 것이랄지, 목적격 조사가 과거형 어미나 미래형 어미보다도 더 늦게 출현한다는 것 등은 대규모 언어 자료를 통해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조명환의 아동 5명의 자료는 생후 10개월부터 3세 2개월까지 비교적 생애 초기에 해당되므로 초기 출현 형태소만이 분석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다양한 문법적 형태소의 출현이 다 보고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어의 격조사라든가, 보조동사, 어미 등의 다양한 형태와 기능은 한국어의 독특한 특성이 될

것이다. 이들 형태소의 출현과 획득시기를 밝히려는 시도는 조명환의 연구이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명환의 자료들이 정확하고 언어획득의 시간적 순서를 알 수 있는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대규모의 아동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수 표본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 개인의 언어획득 양상이 매우 개인차가 크므로 이 자료가 지니는 변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소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일반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연구자들도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문법적 형태소의 획득 순서를 크게 묶어서 말할 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 한국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의 상세한 기준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

문법적 형태소의 기능이 대체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동들이 이러한 문법적 형태소를 획득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언어획득의 개인차 때문일 것이다. 생애 초기에 언어획득의 개인차는 그 어느 시기의 특정 발달 수준간의 차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현저하다. 이처럼 개인차가 큰 주제에 접근할 때에는 연구대상의 규모를 크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의 연구대상으로부터 자료를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을지 모른다. 따라서 대규모의 언어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아동들이 언제 문법적 형태소를 획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은 3개의 연구문제로 구체화되었다.

연구문제 1. 생애 초기에 획득한 문법적 형태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은 문법적 형태소를 각각 언제 획득하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이 획득한 문법적 형태소의 획득 순서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문법구조검사를 실시할 대상으로 영유아를 6개월 단위로 대상을 구분지어 1집단(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집단(24개월 이상-30개월 미만), 3집단(30개월 이상-36개월 미만), 4집단(36개월 이상-42개월 미만), 5집단(42개월 이상-48개월 미만), 6집단(48개월 이상 60개월)¹⁾으로 분류했다. 조사대상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1과 같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문법구조검사는 2000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기존문헌고찰, 예비조사의 과정을 거쳐 영유아

의 문법구조를 검사할 수 있는 총 11개 범주의 문법적 형태소를 선별하고 이 문법적 형태소를 모두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총 17개의 그림과제로 구성되었다. 각 그림은 상황을 설정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각 그림이 제시하는 바가 그 문법적 형태소를 말하도록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시내 어린이집의 2세반과 3세반 아동 10명씩을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영아들이 친숙하게 지내는 강아지, 고양이와 토끼를 주로 제시하여 그림이 구성되었다. 한 예로 순서(먼저·나중), 위치(옆·사이) 형태소를 산출할 수 있는 그림과제는 토끼, 고양이, 강아지가 줄을 서 있는 그림을 제시하여, 토끼 뒤에 고양이, 강아지 앞에 고양이를 말하는 상황이 되도록 말하기를 유도했다.

문법구조검사는 아동이 획득한 언어를 조사하여 문법 형태소마다 획득했는지를 분석하여 그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로서 아직까지 한글의 문법 획득을 검사지를 통해서 검사된 적이 없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한국어의 문법구조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문법구조검사는 문법적 형태소인 대명사, 조

표 1. 조사대상자

집단	월령	남	여	계
1	18-23개월	10	9	19(10.9%)
2	24-29개월	16	14	30(17.2%)
3	30-35개월	13	18	31(17.8%)
4	36-41개월	13	17	30(17.2%)
5	42-47개월	16	16	32(18.4%)
6	48-59개월	17	15	32(18.4%)
계		85(48.9%)	89(51.1%)	174(100%)

1) 1집단부터 6집단을 편의상 1집단은 18개월, 2집단은 24개월, 3집단은 30개월, 4집단은 36개월, 5집단은 42개월, 6집단은 48개월로 칭한다.

사, 형용사, 동사, 부사, 시간, 위치, 순서, 의문사, 경어, 기타 등 11개의 문법 하위형태소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형태소별 문항 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 2. 문법형태소별 구성 요소의 수

문법형태소	구성 요소의 수
1. 대명사	7
2. 조사	16
3. 형용사	4
4. 동사	11
5. 부사	15
6. 시간	5
7. 위치	4
8. 순서	2
9. 의문사	6
10. 경어	4
11. 기타	4
계	78

1) 대명사

대명사는 사물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가리키기만 하는 품사로서,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둘 이상의 대상을 가리키는 복수대명사가 있다. 인칭대명사는 ‘나, 우리’와 같이 화자를 대신하는 1인칭대명사, ‘너, 너희’와 같이 청자를 대신하는 2인칭대명사, ‘그, 그녀’와 같이 화자와 청자 이외에 제3자를 대신하는 3인칭 대명사로 나누어진다. 지시대명사는 ‘이것, 저것’과 같이 사물을 표시하는 말과 ‘여기, 저기’와 같이 장소를 표시하는 말로 분류된다. 그 외에 부정대명사 ‘무엇’과 복수대명사 ‘그것들’, ‘이것들’이 있다.

2) 조사

조사는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품사로서, 크게 격조사와 보조사로 구분된다. 조사에는 체언에 붙어 그 말의 다른 말에 대한 관계를 표시하는 격조사, 선행하는 단어에 특수한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가 있다. 격조사는 ‘-이, -가’와 같은 주격조사, ‘-을, -를’과 같은 목적격조사, ‘-이, -가’와 같은 보격조사, ‘-의’같은 관형격조사, ‘-로, -로써’같은 도구격조사, ‘-에, -로’같은 처소격조사, ‘-와, -랑’같은 동반격조사, ‘-과, -처럼’같은 비교격조사, ‘-라고’같은 인용격조사로 나누어진다. 보조사는 단독을 의미하는 ‘-만, -도’, 비교를 의미하는 ‘-보다’, 동일을 의미하는 ‘-역시’, 미침을 의미하는 ‘-까지’, 추종을 의미하는 ‘-조차’, 균일을 의미하는 ‘-마다’, 선택을 의미하는 ‘-든지’로 나누어진다.

표 3. 조사의 종류별 어휘

조 사		예
격조사	주격조사	-이, -가
	목적격조사	-을, -를
	보격조사	-이, -가
	관형격조사	-의
	도구격조사	-로, -로써
	처소격조사	-에, -로
	동반격조사	-와, -랑
	비교격조사	-과(와), -처럼
보조사	인용격조사	-라고
	단독	만, 도
	비교	보다
	동일	역시
	미침	까지
	추종	조차
	균일	마다
선택	든지	

3) 형용사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품사로서, 크게 일반형용사와 보조형용사로 구분된다. 형용사에는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일반형용사, 다른 말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형용사가 있다. 보조형용사는 희망을 의미하는 '싶다'와 상태를 의미하는 '있다'로 나뉘어진다.

4) 동사

동사는 사물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품사로서, 크게 일반동사, 파생동사, 보조동사로 구분된다. 동사에는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일반동사, 사동사와 피동사로 구성된 파생동사, 다른 말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동사가 있다. 보조동사는 진행의 '있다', 종결의 '나다', 봉사의 '주다', 시행의 '보다', 소유의 '두다', 부정의 '않(는)다', 강세의 '대다', 짐작의 '보이다', 당위의 '한다', 시인의 '하다'로 나뉘어진다.

표 4. 동사의 종류별 어휘

동 사	예
파생	사동 -이다
	피동 -히다
보조	진행 (고) 있다
	종결 (고) 나다
	봉사 (어) 주다
	시행 (어) 보다
	소유 (어) 두다
	부정 (지) 않는다
	강세 (해) 대다
	짐작 (어) 보이다
	당위 (어야) 한다
	시인 (기) 하다

5) 부사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제한해 주는 품사로서, 크게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문장부사, 접속부사로 구분된다.

부사에는 용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꾸미는 성상부사, 앞에 나온 내용을 지시하는 지시부사,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정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부사,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의미를 이어주는 접속부사가 있다. 성상부사에는 위치 표시의 단어 앞에 놓이는 '바로', 수량표시의 단어 앞에 놓이는 '겨우', 정도 표시의 단어 앞에 놓이는 '바로'가 있다.

표 5. 부사의 종류별 어휘

부 사	예
성상	성상 가까이, 멀리
	위치 바로
	수량 겨우
	정도 아주, 너무
	의태, 의성 멍멍, 훗훗
지시	여기, 저기
부정	안
	못
문장	과연
	물론
	정말
	부디
접속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1) 시간 부사 어휘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부사어로, 아까, 아직, 이미, 벌써, 방금 등으로 구성된다.

(2) 순서 부사 어휘

사건이나 사물의 순서와 관련된 부사어로, 앞·뒤, 먼저·나중 등으로 구성된다.

6) 의문사

의문사는 모르는 사람이나 확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말할 때 쓰이는 대명사로, 누구, 어디, 언제, 왜, 어떻게, 무엇을 등으로 구성된다.

7) 경어

경어는 듣는 사람이나 제삼자에게 경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로, 크게 존칭어, 주체높임, 상대높임으로 구분된다. 경어의 종류는 주체 높임말과 상대 높임말로 나뉜다. 주체 높임말은 ‘-께서’, ‘-하시다’ 등으로 주격명사에 존칭 조사를 붙이는 방법과 용언에 ‘시’ 존칭어간을 붙이는 방법으로 행동이나 존재를 나타낸다.

8) 기타 어휘

위에서 열거한 10가지의 어휘 이외에 영유아들이 획득하는 어휘로는 존재, 양, 무게 등을 나타내는 어휘와 사태를 가정하는 어휘 등이 있다. 존재를 나타내는 어휘로는 ‘있다’ ‘없다’이며, 양은 ‘많다’ ‘적다’이고, 무게를 나타내는 어휘는 ‘무겁다’ ‘가볍다’이며, 상황을 가정하는 어휘는 ‘-한다면’ 등이 있다.

3. 검사 절차

연구대상이 된 영유아기 아동들을 훈련받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그림과제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결과를 통계 분석하였다. 그림과제검사는 조사자가 어린이집의 관찰실에서 실시했으며 검사시간은 한 아동 당 30분 내외였다.

어린이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그 문장을 문법적 구조들에 비추어 검토해야 할 것이나 어린이가 알고 있는 모든 문장을 전부 녹음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어린이가 문법 구조를 알고 있는가를 그림과제를 통해서 말하게 하여 조사했다. 때로 부가적으로 교사에게 응답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취했다. 일단 문법 요소가 되는 문법적 형태소를 알고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검사했다.

문법구조검사는 2000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기존문헌고찰, 예비조사의 과정을 거쳐 영유아의 문법구조를 검사할 수 있는 총 11개 범주의 문법적 형태소를 선별하고 이 문법적 형태소를 모두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총 17개의 그림과제로 구성되었다. 한 예로 토끼, 아이, 거북이 나란히 걷고 있는 그림을 앞에 두고서 토끼를 가리키며 묻는다.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라고 물어 “토끼”라는 응답을 들으면 “아이가 어디 있어요?”(위치) “누가 제일 앞에 가고 있어요?”(먼저)라고 물어서 아동이 알고 있는가를 조사했다.

이 검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게 부탁하여 위 연령층에 해당되는 6개 교실에서 언어획득이 빠른 아동, 보통인 아동과 늦은 아동을 각각 선정하도록 해서 이들 3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획득 양상을 조사했다. 이들의 언어획득 양상을 기초로 하여 그림과제를 구성했다. 이 과제는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의 타당성을 조사했으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항목의 그림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재구성했다.

본조사는 2000년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S, H 어린이집에서 18개월에서 48개월 사이의 남녀 영유아 174명을 대상으로 훈련받은 관련전공 대학원생 5명에 의해 2주일

동안 실시되었다.

4. 자료 분석

영유아의 원자료를 통계분석하여 빈도분포를 살펴서 그 연령대의 유아들의 절반(50%)이 넘는 경우는 문법적 형태소를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원자료를 가지고 각 연령집단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문법적 형태소의 산출

영유아 174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언어획득 양상을 문법 형태소별로 분석해 보았다. 조사대상 전체를 연령별로 나누어 문법구조의 하위형태소별 산출 빈도와 산출 비율은 각각의 표6과

같다.

1) 대명사

대명사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와 부정대명사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영유아들이 언제 이러한 대명사를 획득하여 사용하는가를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일인칭 대명사인 ‘나’를 알고 사용하는 것에는 30개월 영아의 74.2%가 해당되며, 이인칭인 ‘너’를 알고 사용하는 것에는 36개월 유아의 경우 53.3%가 해당된다. 삼인칭 대명사인 ‘그’는 48개월에도 사용하지 못한다. 획득 순서로 보면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의 순서이다. 인칭은 자기와 타인을 구별하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다. 이 결과는 영아들이 자기를 우선 인지하고서 상대를 인지하고 그리고 후에 제삼자를 인지하는 것을 밝혀준다. 이는 자아발달의 과정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Lee & Yi, 2000).

표 6. 월령에 따른 대명사 산출 빈도

대 명 사	18-23개월	24-29개월	30-35개월	36-41개월	42-47개월	48-59개월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인칭 (나)	4 21.1%	13 43.3%	23 74.2%	26 86.7%	29 90.6%	28 87.5%	123 70.7%
2인칭 (너)	1 5.3%	1 3.3%	13 41.9%	16 53.3%	15 46.9%	17 53.1%	63 36.2%
3인칭 (그,그녀)	0 0%	0 0%	0 0%	0 0%	4 12.5%	3 9.4%	7 4.0%
지시 (이것,저것)	8 42.1%	23 76.7%	28 90.3%	30 100%	30 93.8%	30 93.8%	149 85.6%
지시 (여기,저기)	5 26.3%	13 43.3%	20 64.5%	24 80.0%	25 78.1%	25 78.1%	112 64.4%
부정 (무엇)	4 21.1%	6 20.0%	21 67.7%	17 56.7%	13 40.6%	18 56.3%	79 45.4%
복수 (들)	0 0%	2 6.7%	3 9.7%	9 30.0%	12 37.5%	17 53.1%	43 24.7%

지시대명사에는 ‘이것’‘저것’, ‘여기’‘저기’ 등이 속한다. 영유아들이 지시대명사를 획득하는 것을 살펴보면 24개월 아동의 76.7%가 ‘이것’ ‘저것’을 알고 산출한다. ‘여기’‘저기’는 30개월 영아의 64.5%가 산출했다. ‘무엇’이라는 부정대명사는 30개월 유아의 67.7%가 획득했다.

복수인 ‘들’은 42개월 유아의 52.1%가 산출했다. 그러나 원래 한글은 복수가 반드시 표기되는

문장 구조가 아니다. 복수를 언급하거나 안 하거나 원칙이 융통성 있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2) 조사

한글의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로 분류된다. 격조사는 격에 따라서 다른 조사를 사용하는데 격에는 주격, 보격, 목적격 등이 있다. 우선 전문식 언어기에는 영아들이 조사를 사용하지 않다

표 7. 월령에 따른 조사 산출 빈도

조 사	18-23개월	24-29개월	30-35개월	36-41개월	42-47개월	48-59개월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격조사	주격조사	5 26.3%	13 43.3%	25 80.6%	27 90.0%	31 96.9%	30 93.8%	131 75.3%
	목적격조사	0 0%	3 10.0%	7 22.6%	14 46.7%	19 59.4%	18 56.3%	61 35.1%
	보격조사	0 0%	0 0%	4 12.9%	9 30.0%	15 46.9%	10 31.3%	38 21.8%
	관형격조사	0 0%	4 13.3%	1 3.2%	3 10.0%	3 9.4%	4 12.5%	15 8.6%
	도구격조사	0 0%	8 26.7%	11 35.5%	16 53.3%	28 87.5%	25 78.1%	88 50.6%
	처소격조사	5 26.3%	13 43.3%	21 67.7%	26 86.7%	29 90.6%	31 96.9%	125 71.8%
	동반격조사	2 10.5%	7 23.3%	16 51.6%	21 70.0%	25 78.1%	31 96.9%	102 58.6%
	비교격조사	0 0%	2 6.7%	9 29.0%	17 56.7%	24 75.0%	21 65.6%	73 42.0%
	인용격조사	0 0%	4 13.3%	11 35.5%	17 56.7%	22 68.8%	23 71.9%	77 44.3%
보조사	만,도	4 21.1%	13 43.3%	21 67.7%	25 83.3%	29 90.6%	29 90.6%	121 69.5%
	보다	0 0%	1 3.3%	5 16.1%	16 53.3%	17 53.1%	25 78.1%	64 36.8%
	역시	0 0%	0 0%	0 0%	1 3.3%	3 9.4%	1 3.1%	5 2.9%
	까지	0 0%	1 3.3%	5 16.1%	9 30.0%	17 53.1%	17 53.1%	49 28.2%
	조차	0 0%	0 0%	0 0%	0 0%	1 3.1%	0 0%	1 .6%
	마다	0 0%	0 0%	0 0%	3 10.0%	10 31.3%	8 25.0%	21 12.1%
	든지	0 0%	0 0%	0 0%	2 6.7%	5 15.6%	3 9.4%	10 5.7%

가 점차 언어가 복잡하고 풍부하게 획득하면서 조사를 획득해 나간다.

격조사를 표4에 따라 살펴보면, ‘는’, ‘가’ 등의 주격 조사를 30개월 영아의 80.6%가 획득했고 ‘를’ 등의 목적격조사를 42개월 유아의 59.4%가 획득했다. 보격조사나 관형격조사는 48개월 유아의 절반도 획득하지 못했다. 한편 ‘로’ 등의 도구격조사는 36개월의 53.3%가 획득했고, ‘에’ 등의 처소격 조사는 비교적 쉽게 획득하여 30개월 영아의 67.7%가 획득했다. 그러나 동반격, 비교격, 인용격 등의 격조사는 48개월 유아들이 산출하지 못했다.

보조사 중에는 30개월 영아의 67.7%가 획득하는 등 ‘만’, ‘도’ 등의 보조사는 일찍이 획득하지만, 나머지 보조사는 48개월의 유아들도 소수 유아 외에는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3) 형용사

형용사는 일반 희망 상태 등을 나타내는데, 이 형용사 중에 ‘크다’ 등 일반 형용사는 18개월 영아의 57.6%가 획득해서 비교적 일찍이 획득하였다. ‘싫다’ 등 희망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30개

월 영아의 절반이 넘는 51.6%가 획득했으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36개월 유아의 절반이 넘는 56.7%가 획득했다. 부정상태를 나타내는 ‘않다’ 형용사는 30개월 영아의 51.6%가 획득했다. 이들 형용사의 획득 순서는 아동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일반형용사, 동시에 희망형용사와 부정형용사, 그리고 상태형용사의 순으로 획득된다.

4) 동사

동사의 획득양상을 살펴보자. 동사는 능동, 사동, 피동으로 나눌 수 있고 동사의 시제형으로는 진행과 종결이 가능하다. ‘하고나서’의 종결은 실상 종결어미로 분류해야겠으나 이 분석이 아동의 언어형태소별 기능분석이므로 이 곳에서 같이 분석한다. 사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42개월의 50%가 획득했다. 피동은 48개월 유아의 6.3%만이 산출했다. 이는 선행연구자들의 보고(이순형, 1983; 조명환, 1982)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이순형은 한국어의 피동형이 문법구조상 영어보다 단순하여 일찍이 획득된다고 보고했다. 조명환도 18개월에 피동을 산출했다는 사

표 8. 월령에 따른 형용사 산출 빈도

형 용 사	18-23개월	24-29개월	30-35개월	36-41개월	42-47개월	48-59개월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일반	11 57.6%	26 86.7%	27 87.1%	28 93.3%	32 100%	32 100%	156 89.7%
희망	4 21.1%	13 43.3%	16 51.6%	23 76.7%	30 93.8%	31 96.9%	117 67.2%
상태	2 10.5%	5 16.7%	12 38.7%	17 56.7%	20 62.5%	20 62.5%	76 43.7%
부정 (않다)	3 15.8%	8 26.7%	16 51.6%	16 53.3%	19 59.4%	16 50.0%	78 44.8%

례를 보고했다. 이는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했다고 보기보다는 선행연구자가 피동사 획득이 빠른 사례를 보고한 것이며, 평균적으로 상당수 유아는 피동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사의 진행은 36개월 유아의 73.3%가 획득했다. 종결어미는 48개월 유아의 50%가 획득했다.

그 외에 봉사, 시행, 보유, 강세, 짐작, 당위, 시인 등의 보조동사의 획득을 살펴보면, 봉사를 의미하는 ‘해주다’는 24개월 영아의 53.3%가, 시행을 의미하는 ‘해보다’는 36개월 유아의

50.0%, 그리고 보유를 의미하는 ‘해두다’는 48개월 유아의 25%정도가 획득하고 있다. 비교적 ‘해야 한다’는 당위는 잘 이해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6개월 유아의 60.0%가 당위를 잘 산출했다. 그러나 강세는 이해가 어려운지 48개월집단 유아의 12.5%, 짐작은 48개월집단 유아의 43.8%가, 시인은 48개월집단 유아의 25.0%가 산출하는데 그쳤다. 이 분포를 보면, 봉사형, 당위형, 시행형, 짐작형, 보유형, 시인형, 강세형의 순으로 산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9. 월령에 따른 동사 산출 빈도

동사	18-23개월	24-29개월	30-35개월	36-41개월	42-47개월	48-59개월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사동	1 5.3%	5 16.7%	5 16.1%	15 50.0%	16 50.0%	21 65.6%	63 63.2%
피동	1 5.3%	0 0%	4 12.9%	2 6.7%	4 12.5%	2 6.3%	13 7.5%
진행 (하고있다)	2 10.5%	6 20.0%	13 41.9%	22 73.3%	29 90.6%	29 90.6%	101 58.0%
종결 (하고나서)	0 0%	1 3.3%	8 25.8%	7 23.3%	14 43.8%	16 50.0%	46 26.4%
봉사 (해주다)	4 21.1%	16 53.3%	21 67.7%	23 76.7%	30 93.8%	31 96.9%	125 71.8%
시행 (해보다)	0 0%	2 6.7%	11 35.5%	15 50.0%	17 53.1%	23 71.9%	68 39.1%
보유 (해두다)	0 0%	2 6.7%	2 6.7%	5 16.7%	7 21.9%	8 25.0%	24 13.8%
강세 (해대다)	0 0%	0 0%	0 0%	0 0%	3 9.4%	4 12.5%	7 4.0%
짐작 (해보인다)	0 0%	1 3.3%	0 0%	7 23.3%	5 15.6%	14 43.8%	27 15.5%
당위 (해야한다)	0 0%	0 0%	12 38.7%	18 60.0%	27 84.4%	26 81.3%	83 47.7%
시인 (하기는했다)	1 5.3%	3 10.0%	1 3.2%	1 3.3%	6 18.8%	8 25.0%	20 11.5%

5) 부사

영아들이 가장 먼저 획득하는 부사는 의성어와 의태어이다. 18개월 영아의 73.7%가 의태어와 의성어를 획득했다. 부정부사인 ‘아니(안)’는 18개월 영아의 52.6%가 획득했으나 동일 부정사인 ‘못’은 36개월 유아의 56.7%가 획득했을 뿐이다.

의태·의성어는 매우 빨리 획득되어서 18개월 집단 영아들의 73.7%가 획득했다. 지시를 나

타내는 부사어 ‘여기·저기’는 30개월 영아의 71.0%가 획득했다.

‘아주·너무’를 알고 응답한 유아는 42개월 집단의 59.4%이다. ‘가까이’, ‘멀리’를 알고 응답한 영아는 42개월 유아의 53.1%이다. ‘아주, 너무’를 획득한 영아도 2개월 유아의 59.4%이다. ‘정말’은 42개월 유아의 75.0%가 알고 응답했다. ‘바로’ ‘겨우’ ‘물론’은 어려운 부사인지 48개월 유아의 12.5%, 15.6%, 4%에 해당된다. ‘부

표 10. 월령에 따른 부사 산출 빈도

부 사	18-23개월	24-29개월	30-35개월	36-41개월	42-47개월	48-59개월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가까이,멀리	0 0%	3 10.0%	9 29.0%	7 23.3%	17 53.1%	23 71.9%	59 33.9%
바로	0 0%	0 0%	0 0%	3 10.0%	6 18.8%	4 12.5%	13 7.5%
겨우	0 0%	0 0%	2 6.5%	3 10.0%	3 9.4%	5 15.6%	13 7.5%
아주,너무	0 0%	5 16.7%	8 25.88%	14 46.7%	19 59.4%	19 59.4%	65 37.4%
의태,의성	14 73.7%	26 86.7%	30 96.8%	27 90.0%	27 84.4%	32 1100.0%	156 89.7%
지시	1 5.3%	11 36.7%	22 71.0%	20 66.7%	22 68.8%	23 71.9%	99 56.9%
부정(아니)(안)	10 52.6%	22 73.3%	28 90.3%	27 90.0%	29 90.6%	30 93.8%	146 83.9%
부정(못)	1 5.3%	4 13.3%	7 22.6%	17 56.7%	18 56.3%	18 56.3%	65 37.4%
과연	0 0%	0 0%	1 3.2%	0 0%	0 0%	1 3.1%	2 1.1%
물론	0 0%	0 0%	0 0%	6 20.0%	2 6.3%	4 12.5%	12 6.9%
정말	0 0%	3 10.0%	13 41.9%	13 43.3%	24 75.0%	20 62.5%	73 42.0%
부디	0 0%	0 0%	1 3.2%	0 0%	0 0%	0 0%	1 .6%
그리고	0 0%	0 0%	8 25.8%	8 26.7%	13 40.6%	10 31.3%	39 22.4%
그런데	0 0%	0 0%	3 9.7%	15 50.0%	21 65.6%	23 71.9%	62 35.6%
그래서	0 0%	2 6.7%	3 9.7%	15 50.0%	13 40.6%	20 62.5%	53 30.5%

디'나 '과연' 등은 48개월 유아의 0%, 3.1%에 불과했다. 이 분포를 가지고 획득 순서를 추정해 보면 '의태·의성어', '안', '여기·저기', '못', '그래서·그런데', '정말', '아주·너무', '가까이·멀리', '그리고', '겨우', '바로'와 '물론', '과연', '부디'의 순이다.

그 외에 접속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가 있다. 이 부사어의 획득 여

부를 살펴보면 '그리고'는 42개월 유아의 40.6%, '그런데'는 36개월 유아의 50.0%, '그래서'는 48개월 유아의 62.5%가 획득했다. 연결부사만의 획득순서를 추정해 보면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의 순이다.

부사어로서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의 획득을 살펴보면, '이미'는 48개월 유아의 12.5%, '벌써'는 42개월 유아의 65.6%, '아까'는 36개월

표 11. 연령에 따른 부사어 산출 빈도

시간단어	18-23개월	24-29개월	30-35개월	36-41개월	42-47개월	48-59개월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이미	0 0%	0 0%	0 0%	0 0%	1 3.1%	4 12.5%	5 2.9%
벌써	0 0%	1 3.3%	2 6.5%	11 36.7%	21 65.6%	25 78.1%	60 34.5%
아까	1 5.3%	5 16.7%	15 48.4%	20 66.7%	28 87.5%	26 81.3%	95 54.6%
아직	1 5.3%	1 3.3%	6 19.4%	13 43.3%	19 59.4%	23 71.9%	63 63.2%
방금	0 0%	1 3.3%	5 16.1%	9 30.0%	16 50.0%	19 59.4%	50 28.7%
위치단어	18-23개월	24-29개월	30-35개월	36-41개월	42-47개월	48-59개월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래, 위	0 0%	10 33.3%	15 48.4%	19 63.3%	27 84.4%	26 81.3%	97 55.7%
옆, 사이	0 0%	6 20.0%	13 41.9%	20 66.7%	24 75.0%	26 81.3%	89 51.1%
안, 밖	1 5.3%	12 40.0%	20 64.5%	21 70.0%	24 75.0%	27 84.4%	105 60.3%
앞, 뒤	0 0%	3 10.0%	8 25.8%	15 50.0%	26 81.3%	23 71.9%	75 43.1%
순서단어	18-23개월	24-29개월	30-35개월	36-41개월	42-47개월	48-59개월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먼저, 나중	0 0%	6 20.0%	14 45.2%	20 66.7%	27 84.4%	25 78.1%	92 52.9%
앞, 뒤	0 0%	3 10.0%	8 25.8%	15 50.0%	26 81.3%	23 71.9%	75 43.1%

유아의 66.7%, ‘아직’은 42개월 유아의 59.4%, ‘방금’은 42개월 유아의 50.0%이다. 획득순서를 추정해 본다면 ‘아까’, ‘벌써’, ‘아직’, ‘방금’, ‘이미’의 순이다.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획득을 살펴보면, ‘아래.위’는 36개월 유아의 63.3%, ‘옆.사이’는 36개월 유아의 66.7%, ‘안.밖’은 30개월 유아의 64.5%, ‘앞.뒤’는 36개월 유아의 50.0%이다. 사건이나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먼저.나중’과 ‘앞.뒤’의 획득을 보면, ‘먼저.나중’은 36개월 유아의 66.7%, ‘앞.뒤(순서)’는 36개월 유아의 50.0%이다. 위치와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획득순서를 추정해 본다면 ‘안.밖’, ‘옆.사이와 먼저.나중’, ‘아래.위’, ‘앞.뒤(순서)’의 순이다.

6) 의문사

의문사의 획득을 살펴보면, ‘누가’는 30개월

유아의 71.0%, ‘어디’는 30개월 유아의 67.7%, ‘언제’는 36개월 유아의 63.3%, ‘왜’는 30개월 유아의 51.6%, ‘어떻게’는 36개월 유아의 60.0%이다. ‘무엇을’은 24개월 영아의 50.0%이다. 획득순서를 추정해 본다면 ‘무엇을’, ‘누가’, ‘어디’, ‘왜’, ‘언제’, ‘어떻게’의 순이다.

7) 경어

경어는 어미의 존칭을 사용하는 것이나 주체높임과 상대높임이 있고 주체높임은 격조사의 높임과 동사의 높임이 있다. 어미의 존칭 사용은 42개월 유아의 50.0%에게서 보인다. 주체높임의 경우에 주어격조사의 높임은 48개월 유아의 25.0%가, 동사의 높임은 28.1%에서 보인다. 상대 높임은 24개월 영아의 70.0%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경어체계보다 비교적 쉽게 획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어 획득의 순서를 추정

표 12. 월령에 따른 의문사 산출 빈도

의문사	18-23개월	24-29개월	30-35개월	36-41개월	42-47개월	48-59개월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누가	2 10.5%	9 30.0%	22 71.0%	25 83.3%	25 78.1%	27 84.4%	110 63.2%
어디	3 15.8%	9 30.0%	21 67.7%	26 86.7%	23 71.9%	28 87.5%	110 63.2%
언제	0 0%	1 3.3%	10 32.3%	19 63.3%	25 78.1%	26 81.3%	81 46.6%
왜	0 0%	9 30.0%	16 51.6%	23 76.7%	27 84.4%	28 87.5%	103 59.2%
어떻게	0 0%	4 13.3%	10 32.3%	18 60.0%	18 56.3%	23 71.9%	73 42.0%
무엇을	5 26.3%	15 50.0%	24 77.4%	25 83.3%	25 78.1%	26 81.3%	120 69.0%

한다면 상대 높임, 존칭, 주체높임의 순이다.

어휘 사용은 Piaget가 말한 존재 보존의 개념을 일찍이 획득한 것의 반영으로 보인다.

8) 기타 어휘

위에서 열거한 문법적 형태소 10개 이외에 유아의 인지발달과 관련된 어휘의 획득을 살펴보면, 아래 표14와 같다. 즉 존재를 나타내는 어휘인 ‘있다·없다’는 24개월 영아의 70.0%가 획득했고, 양을 나타내는 ‘많다·적다’는 24개월 영아의 53.3%, 무게를 나타내는 ‘무겁다·가볍다’는 30개월 영아의 64.5%, 가정을 나타내는 ‘한다면’은 36개월 유아의 50.0%가 획득했다. 이 어휘들의 획득 순서를 추정해 본다면 존재, 양, 무게, 가정의 어휘 순이다. 이처럼 존재에 대한

IV. 결 론

영어권의 학자들이 1970년대에 영어의 문법적 형태소의 발달을 밝힌 것과 비교해 볼 때 조명환이 1982년도에 발간한 책 이외에 한국어의 문법적 형태소의 획득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조명환의 보고도 문법적 형태소의 출현을 5명의 아동의 언어산출에서 보고하였을 뿐이다. 언어획득이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고려해

표 13. 월령에 따른 경어 산출 빈도

경 어	18-23개월	24-29개월	30-35개월	36-41개월	42-47개월	48-59개월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존칭	1 5.3%	7 23.3%	5 16.1%	11 36.7%	16 50.0%	20 62.5%	60 34.5%
주체높임 (께서)	2 10.5%	0 0%	0 0%	2 6.7%	3 9.4%	8 25.0%	15 8.6%
주체높임 (시다)	0 0%	0 0%	3 9.7%	7 23.3%	10 31.3%	9 28.1%	29 16.7%
상대높임	7 36.8%	21 70.0%	26 83.9%	24 80.0%	28 87.5%	27 84.4%	133 76.4%

표 14. 월령에 따른 기타 어휘 산출 빈도

기 타 어 휘	18-23개월	24-29개월	30-35개월	36-41개월	42-47개월	48-59개월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존재 (있다,없다)	7 36.8%	21 70.0%	28 90.3%	30 100%	32 100%	32 100%	150 86.2%
양 (많다,적다)	1 5.3%	16 53.3%	24 77.4%	25 83.3%	30 93.8%	30 93.8%	126 72.4%
무게 (무겁다,가볍다)	2 10.5%	9 30.0%	20 64.5%	25 83.3%	30 93.8%	28 87.5%	114 65.5%
가정 (한다면)	1 5.3%	1 3.3%	5 16.1%	15 50.0%	24 75.0%	19 59.4%	65 37.4%

보면 종단적 자료로서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아동의 언어획득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횡단적 연구이더라도 대규모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174명을 6개월 단위로 각 급간을 충족시키도록 표집하여 그림과제를 가지고 문법적 형태소를 조사하여 통계분석했다.

수집한 자료를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음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첫째 영유아가 일반 명사를 획득한 후에 대명사를 획득한다. 대명사 중에 인칭대명사는 30개월 이후에 획득되는데 일인칭 대명사, 이인칭 대명사와 삼인칭 대명사의 순서로 획득된다. 지시대명사는 24개월 이후에 사물을 지시하는 대명사를 산출하고 30개월 이후에 장소를 지시하는 대명사를 산출하며 부정대명사도 이 시기에 산출한다. 복수를 나타내는 어간은 42개월 이후에 산출된다.

한국어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조사의 사용이다. 조사는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주격조사는 30개월 전후에, 목적격조사는 42개월경에, 보격조사나 관형격 조사는 5세 이후에 완전히 획득된다. 도구격조사는 36개월 전후에, 처소격조사는 30개월 전에 비교적 쉽게 획득한다. 동반격, 비교격, 인용격 등의 격조사는 5세 이후에 획득된다. ‘만, 도’ 등의 보조사는 30개월 이전에 획득되지만 나머지 보조사는 5세 이후에 획득된다.

형용사 중에 일반형용사는 18개월경에 획득되며, 희망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36개월경에, 부정형용사는 30개월경에 획득한다. 따라서 형용사의 획득은 일반형용사, 희망형용사, 부정형용사와 상태형용사의 순으로 획득된다.

동사는 능동, 사동, 피동으로 분류된다. 사동은 42개월경에 획득되고, 피동은 48개월 이후에 획득된다. 동사의 현재진행은 36개월경에, 종결어미는 48개월 이후에 획득한다.

동사의 봉사형, 시행형, 보유형, 강세형, 짐작형, 당위형, 시인형 성격의 동사가 있다. 이들 가운데 봉사형은 24개월 이후, 당위형과 시행형은 36개월 이후, 짐작형, 보유형, 시인형과 강세형은 60개월 이후에 획득한다. 동사의 획득은 봉사형, 당위형, 시행형, 짐작형, 보유형, 시인형, 강세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부사의 산출을 보면 의태의성어가 가장 먼저 획득되어 18개월 전후에 획득된다. 부정부사인 ‘아니(안)’는 18개월 이후에 획득되고 ‘못’은 36개월 이후에 획득된다. 지시를 나타내는 부사어 ‘여기·저기’는 30개월 이후에 획득된다. ‘아주·너무’는 42개월 이후에, ‘가까이’, ‘멀리’는 42개월 이후에, ‘아주, 너무’는 42개월 이후에, ‘정말’은 42개월 이후에 획득된다. ‘그리고’는 60개월 이후에, ‘그런데’는 36개월 이후에, ‘그래서’는 36개월 이후에 획득된다. 한편 ‘바로’ ‘겨우’·‘물론’·‘부디’나 ‘과연’은 어려운 부사인지 60개월 이후에 획득된다. 부사어의 획득은 ‘의태·의성어’, ‘안’, ‘여기·저기’, ‘못’, ‘그래서·그런데’, ‘정말’, ‘아주·너무’, ‘가까이·멀리’, ‘그리고’, ‘겨우’, ‘바로’와 ‘물론’, ‘과연’, ‘부디’의 순이다.

부사 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로 ‘이미’는 48개월 이후에, ‘벌써’는 42개월 이후에, ‘아까’는 36개월 이후, ‘아직’은 42개월 이후, ‘방금’은 42개월 이후이다. 획득순서는 ‘아까’, ‘벌써’, ‘아직’, ‘방금’, ‘이미’의 순이다.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어로는 ‘아래·위’는 36개월 이후, ‘옆·사이’는 36개월 이후, ‘안·밖’은 30개월 이후, ‘앞·

뒤'는 36개월 이후에 획득된다. 사건이나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먼저·나중'과 '앞·뒤'의 획득을 보면, '먼저·나중'은 36개월 이후에, '앞·뒤(순서)'는 36개월 이후에 획득된다. 위치와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부사어의 획득순서를 추정해 본다면 '안·밖', '옆·사이와 먼저·나중', '아래·위', '앞·뒤(순서)'의 순이다.

의문사 중에 '누가'는 30개월 이후, '어디'는 30개월 이후, '언제'는 36개월 이후, '왜'는 30개월 이후, '어떻게'는 36개월 이후, '무엇'은 24개월 이후에 획득된다. 의문사의 획득순서는 '무엇', '누가', '어디', '왜', '언제', '어떻게'의 순이다.

경어 어미의 존칭 사용은 42개월 이후에, 주체 높임의 경우에 '께서' 등 주어격조사의 높임은 60개월 이후에, 경어어미를 사용하는 상대 높임은 24개월 이후에 비교적 쉽게 획득한다. 경어 획득의 순서를 추정한다면 상대 높임, 존칭, 주체 높임의 순이다.

위 형태소이외에 유아의 인지발달과 관련된 어휘의 획득을 살펴보면, 존재를 나타내는 어휘는 24개월 이후에, 양을 나타내는 어휘는 24개월 이후에, 무게를 나타내는 어휘는 30개월 이후에, 가정어는 36개월 이후에 획득했다. 이 어휘들의 획득 순서를 추정해 본다면 존재, 양, 무게, 가정의 어휘 순이다. 이처럼 존재에 대한 어휘 사용은 Piaget가 말한 대상 항상성 개념을 일찍이 획득한 인지구조의 반영이다. 그리고 양과 무게 보존이 가능한 인지발달이 역시 언어획득과 관련된 조건임을 입증해 주었다.

이처럼 문법적 형태소의 획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6개월 단위의 연령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했을 때 비교적 생애 초기

에 획득되는 형태소의 거의 대부분이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유아기 이후에 획득되는 소수의 형태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점차로 획득되는 것임을 밝혀준다. 이로써 형태소 획득의 점진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가설은 앞으로 실험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초기 문법적 형태소의 획득 양상을 밝혔다는 의의를 지니나 조사대상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로 한정되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시설에서 또래들과 교류가 많은 아동들의 언어 획득이 가정에서 지내는 아동들의 것과 다른지 여부는 추후 연구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순형. (1985). 한국아동의 부정사 획득. 아동학회지, 제6권, 1호, 17-40.
- 이승복. (1979). 단일단어 시기의 어린이언어의 의미론적 발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명환. (1982). 한국아동의 언어획득연구: 책략 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Bates, E. & MacWhinney, B. (1982). Functionalist approaches to grammar. In E. Wanner & L. Gleitman (eds.), *Language development: The state of the ar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ko, J. (1958). The child's learning of English morphology. *Word*, 14, 150-177.
- Bloom, L. (1970). *Language development. Form and function in emerging grammars*. Cambridge, MA: MIT Press.

- Brown, R. W. (1973). *A first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R. W. & Bellugi, U. (1964). Three processes in the acquisition of syntax. *Harvard Educational Review*, 34, 133-151.
- Clark, E. V. (1993). *The lexicon in acquisi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iday, M. A. K. (1975). *Learning how to mean: Explorations in the development of language*. London: Edward Arnold.
- Lee, Y. M. & Yi, S. H. (2000). The relationship of developmental level and self-understanding in ~~developmental level and self-understanding in~~ ISSBD Meetings. Beijing, China 2000, 7, 11-14.
- Snow, C. E. (1977). The development of conversation between mothers and babies. *J. of Child Language*, 4, 1-22.
- Spodek, B. & Saracho, O. N. (1993). *Language and literac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N.Y.: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Press.